

발간 등록번호 76-901000-000008-06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 이야기

장학월보

Vol 263 2015 / 1



추암의 쫓대바위

글 함안 유원초등학교 교감 이동림

치열씩 좌르르르
부서져 무너진다
흰 이빨 드러내며
파도여 매우 쳐라
가혹한
고통의 강을
건널 수만 있다면

쫓아라 아침 해야
시린 밤 견딘 해야
파도는 수천년을
제 살로 깎아대어
쫓쫓이
벼리어 세운
쫓대 하나 밝혔네



Contents



04 권두언

신년사 / 교육감

08 생생현장

10 교육칼럼

우리 아이들은 모두 창의적이다! / 최학범

11 특별기획 / 2015. 경남교육 방향

2015. 경남교육 정책 방향 / 남택권
학생 중심·배움 중심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 박혜숙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사항 안내 / 박세권

20 교육정보

2015학년도 인사관련 변경 사항 / 장영욱
학교폭력 사례 / 성수민

22 배움 중심 수업

사랑으로 사람다움을 채워갑니다 / 조현숙
도서관 활용을 통한 교과연계 진로독서 수업 / 하미정

26 배움이 즐거운 학교

놀품 체(體)·인(仁)·지(知) 3색 금병교육 (진영금병초) / 노재원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 (거제 하청중) / 김재중
스마트 도구를 활용한 학생이 즐거운 프로젝트 학습 (진주제일중) / 송은주

33 이달의 교사

가까운 이웃, 다문화교육은 상생의 열쇠 / 이유경

35 삶의 향기

2015년, 올미년 새해를 맞이하며 / 김혜영
스승과 제자, 그 특별한 인연 / 성원정

37 동아리 탐방

교사 수업연구 동아리 '두+드림(Do and Dream)' / 이혜정

38 행복한 책 읽기

39 지상갤러리

여가 / 김봉대



표지사진 "쌍쌍쌍쌍"
강수희(하동 고남초등학교 교무행정원)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1월호 모집 기간 : 2015년 1월 19일까지
- 모집내용 : 배움이 즐거운 학교, 배움 중심 수업, 삶의 향기(시, 수필, 독후감 등), 등 분량 : A4 1~2매 내외
- 원고보내는 곳 :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 ※ 내려받기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초등교육과 ▶ 부서사업 ▶ 보고서 / 간행물

2015년 1월 2일 발행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총괄 | 초등교육과 과장 정병문 기획 | 초등장학담당장학관 박혜숙

편집주간 | 초등교육과 장학사 김대현

편집위원 | 박영선, 박선정, 배인숙, 김요섭, 정호찬 인쇄 | 문성인쇄사 (055)282-9922



신년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눈부신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미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의 많은 일들은 우리에게 무거운 교훈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우리 사회가 낳은 세월호의 비극은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으며,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은 병들고 지쳐가는 우리 학교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성실하게 살아도 갈수록 고단해지기만 하는 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절실히 요구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역사를 잇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듯이, 지난 일에 대한 뼈아픈 성찰이 없고서는 새로운 미래는 우리의 몫이 아닐 것입니다. 존중과 배려가 넘치고 기본에 충실한 사회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꽃피듯,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와 간절한 염원은 경남에도 ‘새로운 교육’이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경쟁보다 협력을 앞세워 배움이 즐거운 교육, 인권과 교권이 존중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비리 없고 신뢰 받는 교육행정의 혁신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이 모여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그동안 저는 교육에 대해 다양한 입장과 철학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지역에 산적한 교육 현안을 파악하며 교육이 무엇을 위해 기여해야 할 것인지, 가장 교육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지난 10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끈 ‘500인 원탁토론’은 소통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주어진 마음이 얼마나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교육정책이 주체들의 소통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철학과 방향이 분명한 교육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새로운 경남 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2015년을 ‘교육 본질 회복의 원년’으로 삼으려 합니다. 수많은 과제들이 존재하지만, 올해에는 다음 세 가지 핵심 과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과감한 구조 개혁을 통해 일하는 교육청, 지원하는 교육청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인력의 효율적 배치로 학교 업무 지원을 강화하여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업무와 인력 배치를 분석하여 70여 명의 인원을 감축하는 쉽지 않은 결단을 하였습니다. 감축되는 인력은 교육지원청과 교육연구정보원으로 배치하여 학교업무를 줄이고 교사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행정업무에 더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학생들에게 눈을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교사의 직무경감은 수업 연구와 생활지도 강화로

이어져 우리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가 교육이 가능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잡무경감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간소화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업무의 효율성 확보, 교육이 되살아나는 학교를 위해 그 기반을 튼튼히 쌓겠습니다.

둘째, 강제 야간자율학습 폐지, 인성교육 강화, 가족과 함께 하는 생활 문화 만들기를 통해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폭력은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질서를 정립하는 수단으로 작동합니다. 우리 사회의 위기를 조성한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폭력은 단순한 훈계나 처벌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폭력을 줄일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획일적인 통제로 학습의 자발성을 해치고 있는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고 학원 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하여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것이 현실이지만, 교육은 현실의 안착을 뛰어넘어 새로운 모형을 창출하고 이로써 미래사회를 이끌어야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학생의 자발성을 키우고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육 철학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기본이 되는 문화를 만듦으로써 우리 사회의 폭력을 줄이고 안전한 학교, 건강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길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문화 만들기에 학교와 사회가 앞장설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비리를 엄단하여 신뢰받는 교육청, 깨끗한 경남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육은 신뢰에서 출발합니다. 신뢰받는 교육, 깨끗한 경남 교육을 위해서 인사 비리, 공사 비리 등 각종 교육 관련 비리를 엄단하겠습니다.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TF팀을 꾸려, 부당한 방법으로 원칙을 훼손하는 교육계의 비리에는 어떤 관용도 베풀지 않겠습니다. 깨끗한 경남교육을 만드는 일에 도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상급식 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최초로 실시한 지역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졌음에도 이런 불미스런 사태를 만들어 도민께 걱정을 끼치게 된 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은 단순한 밥 한 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며, 복지 사회의 근간이 될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국민의 합의에 의해 시행되어 온 이 소중한 정책을 정치적 판단에 의해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도민과 함께 무상급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새로운 교육을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저를 뽑아주신 그 뜻을 깊이 새기며, 경남 교육의 혁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록하지 않은 현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과 함께 새로운 경남 교육 100년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곳곳하게 전진하겠습니다.

특히, 학교안전에 관한 문제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교육에 대한 애정을 믿으며, 새로운 경남 교육 원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을미년 새해를 맞아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새해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을미년 새해 아침

경상남도교육감 박 종 훈

생생현장

1



2



3



4

- ① 제36회 경남교육상 시상식 개최
- ② 2014. 작가 초청 강연회(박경철 원장)
- ③ '2014 경남 청소년 나라사랑 토크콘서트 꿈&톡'
- ④ 행복학교 11개교 선정

- 5 2014. 배움중심 수업 연수 (고성교육지원청)
- 6 2015. 학교교육과정 미리 준비합니다 (양산교육지원청)
- 7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성과보고회 (남해교육지원청)
- 8 지혜로운 부모, 행복한 자녀 (사천교육지원청)
- 9 직원·학부모·교사 대상 정부 3.0교육 실시 (창원교육지원청)
- 10 꿈꾸는 청소년이 아름답다 (거창교육지원청)
- 11 섬마을 유치원을 찾아온 산타클로스(통영교육지원청)

5



6



7



8



9



10



11





우리 아이들은 모두 창의적이다!

글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학범



미래를 이끌어 갈 힘의 원천은 ‘창의성’이란 말을 한다. 최첨단 기기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가 주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면 자신의 아이가 머리가 좋은지, IQ가 어느 정도인지, EQ는 좋을지 궁금한 점이 많을 것이다. 특히 교육에 대한 열의와 관심이 어느 나라 못지않게 높은 대한민국의 예비부모라면 어떻게 하면 머리 좋은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지 태교도 많이 하고 관련 정보도 많이 찾아봤을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부모들과 예비부모들이 아이가 건강하고 머리 좋게 태어나고 자라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아이의 두뇌가 가진 특징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듯하다.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뇌가 놀랍도록 성장한다고 한다. 태어났을 때는 뇌의 20~30%가 자라있고, 세 살이 되면 80%, 여섯 살이 되면 90% 이상 성장하는데, 이것은 태어난 이후 2~3년의 경험이 뇌 발달에 엄청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태어나서 3세까지는 고도의 정신 활동을 담당하는 뇌의 앞쪽 전두엽과 위쪽 두정엽, 뒤쪽 후두엽 등 뇌의 기본 골격이 형성되며, 신경세포끼리 연결 회로가 만들어지는 시기로 머리의 좋고 나쁨은 이 신경세포 회로가 얼마나 형성되는가에 따라 결정되고, 그것은 만 3세까지 가장 활발하게 발달한다는 것이다.

3세에서 6세 사이에는 종합적인 사고와 도덕성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집중적으로 발달한다. 이 시기에 예절 교육과 인성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예의 바르고 인간성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부모가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동화책을 읽어 주면 어휘와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놀이를 통한 접촉을 통해 손 근육과 두뇌가 발달되는데, 특히 손의 정교한 동작은 곧바로 뇌로 전달돼 아이의 뇌 신경망 형성에 도움을 준다. 아이와 부모 간의 유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부모와 친밀한 애착 관계를 경험하고 신나는 놀이를 통해 에너지를 교류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될 뿐 아니라 면역체계도 튼튼해진다.

창의성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아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창의성의 원천이 된다. 다양한 놀이와 시도, 고정된 관념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자유로운 표현, 그리고 허용적 환경,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인정과 격려가 그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이가 창의적인 사고를 하도록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신념과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 어느 순간에도 끝까지 ‘가능성을 먼저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아이들을 가장 행복하고 창의적이게 하는 것은 바로 부모의 믿음일 것이다. 아이들은 모두 창의적이다. 부모가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특별기획

2015. 경남교육방향

1월호에는 2014년 새 교육감 취임 후 달라진
경남교육의 방향에 따라 새롭게 수립된 올해의
교육 계획 및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2015. 경남교육 정책 방향

글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남택권

들어가기

2014년 새 교육감 취임 후 경남교육의 방향은 확연히 달라졌다. 지난 6개월 동안 교육가족의 의견을 수렴하고 새 교육 철학과 접목하면서 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했다. 그것이 지난 12월 설명회를 통해 발표된 「2015. 경남교육」에 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와 교직원은 그 지침에 따라 올해의 교육 계획을 수립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재론하지 않고, 크게 달라지는 정책을 중심으로 올해 정책 방향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행복학교를 시작으로 교실 수업이 달라진다

행복학교는 일찍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많은 학교에서 신청을 했지만 예산 문제로 11개교만 지정되었다. 이어 행복맞이학교도 신청이 쇄도했지만 70개교만 지정되었다. 연구회 30개 회까지 합치면 행복학교 관련 활동은 111개소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행복학교는 배움이 즐거운 교실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모델 학교이다. 따라서 지정된 학교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교실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행복학교만 경남교육의 지표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학교에서도 학교교육계획 편성에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행복학교와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올해는 교실이 미래지향적으로 전환되는 원년이다. 따라서 교육정책의 큰 줄기는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학력평가는 서술형 중심으로 바뀐다

배움이 즐거운 교실에서는 수업이 종전과 다르게 전개된다. 수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끄는 동력은 평가라 할 수 있다. 평가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수업이 바뀌기 어렵다. 서술형 평가를 대폭 도입하여 공부다운 공부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초등학교는 일제 평가를 지양하고 수시 평가 체제로 나아간다. 그 중심은 현행의 수행평가이다. 다만 수행평가를 다양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선택형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선택형 평가와 다른 없는 수준의 서답형 평가도 과감히 개선한다. 긴 줄글로 사실과 생각을

드러내는 논술형 평가, 관찰기록, 보고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평가함으로써 학습과 성장을 돕는 체제로 나아갈 것이다. 중등학교는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중학교에만 우선 서술형 평가를 도입한다. 올 2학기 1차평가에서 시범으로 실시하여 문제점과 발전 방안을 모색한 다음 2016년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중학교에서의 서술형 평가 또한 논술식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

평가 방식의 변경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수업이 달라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 교사의 역량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출제의 능력도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정보원은 각종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연수원은 관련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뒷받침할 예정이다.

사이버 도서관을 구축한다

사이버 도서관에 대해 아직도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다. 개념이 생소하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도서관 정도로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아도 좋다. 각종 자료들은 현재도 많이 축적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장된다. 자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우수 자료라 해도 발간과 동시에 묻히는 경우도 많다. 탑재되어 있는 자료도 어디에 수록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자료와 새로 제작하는 자료를 한데 모으고, 이용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지만, 향후 앱을 개발하여 스마트폰으로도 접근할 수 있게 개선해 갈 것이다.

안전에 대한 틀이 확연히 바뀐다

올해 경남교육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학생 안전이다. 세월호 참사 전후로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달라졌듯이 경남교육의 안전 체제를 확연하게 바꾸겠다는 것이 교육감의 의지이다.

3월 1일자로 단행될 조직 개편에서도 교육감 직속의 안전총괄담당이 신설된다.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안전 관련 사무를 조율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뜻이다. 안전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므로, 대처가 늦으면 소용 없다. 이 허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올해는 그 체제를 대대적으로 구축해 갈 것이다.

안전에 대한 범주를 넓힘으로써 안전 의식도 넓힌다. 지금까지 재난, 사고가 주된 관심사였지만, 학생의 정서 문제, 학습 장애, 가정 문제, 학교 문화, 스마트폰 오용 문제까지 영역을 넓혀 총체적으로 접근한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에서는 학생이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폭력도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한 줄로 세우는 교육에서는 불행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폭력의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교실 수업을 개선하여 협력 속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문화가 자리잡도록 학교문화 전반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 폭력 제로 공감학교를 만들기 위한 범도민 캠페인도 전개하고, 민관이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한다.

인성 교육의 방향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교과교육과 인성교육이 따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짙었다. 새로운 교실 문화 속에서는 인성교육이 절로 따라오게 될 것이다. 협력적 수업, 학생 주도적 분위기, 독서와 토론이 중심이 되어 펼쳐지는 수업에서는 인간 관계가 개선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인성교육은 이런 문화를 토대로 해야 한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교육원 수련활동도 중학생 대상으로 바뀐다. 중학생들이 정서적 갈등을 가장 많이 겪고, 학교 부적응도 많이 보인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부재했다. 극기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심성 계발 중심으로 다양화하여 수련 활동을 시행하게 된다.

밤 10시에는 가족으로 품으로 돌아간다

학교 폭력 문제의 근원에는 가정의 파탄이나 결손이 놓여 있다. 학생의 행복은 학교에서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가정에서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학습만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풍토에서는 가정과 가족애를 무시하기 쉽다.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 야간 자율학습은 알차게 개선하고, 학원 교습 시간도 제한하여 밤10시에는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누리게 할 것이다.

조직 개편으로 학교 지원을 강화한다

관리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교육력 제고의 행정 구조를 정립한다. 본청은 대폭적인 슬림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의 생산을 줄이며, 감독 기능보다 지원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직속기관은 연구와 연수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된다. 특히 연구정보원의 경우 그 역할을 대폭 강화하여 정책 연구, 교육 연구, 자료 확충, 교수·학습 지원 등에 힘쓰게 된다.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근접 지원하게 된다. 단위학교에서 맡고 있던 업무의 상당수를 이관받아 학교의 부담을 줄여 줌과 동시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게 된다. 올 3월 1일자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학교 지원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학교 행정 업무가 감축된다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미 발표한 학교업무 다이어트 프로젝트도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보완된다. 줄이거나 통합할 업무들을 계속 발굴하여 부담을 줄여 줄 것이다.

조직 개편을 통해서도 그 효과가 드러나겠지만, 정책 연구를 통해서도 뒷받침하게 된다. 효과적인 자율학습 방안, 방과후학교 운영 방안 등 관련 정책도 연구 중에 있으므로 학교가 참고하여 실정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이와 함께 각종 기관 평가 체제도 대폭 변화된다. 따로 이루어지던 교육지원청 평가, 직속기관 평가, 성과평가는 성과관리 평가로 통합된다.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평가는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평가로 대체한다.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와 학교평가 지표를 분리하고 학교평가는 자체평가로 변환한다. 유치원 평가는 간소화하여 유아교육원이 담당하도록 한다. 아울러 평가 우수 기관 표창제와 자구 노력비 지급제도 폐지하여 평가의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된다.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를 이룩한다

다양한 주체로부터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한다. 민관 거버넌스 체제를 도입하고, 교육감과 함께하는 500인 원탁 토론회도 연다. 각급 학교 학생회장 리더십 연수도 실시하는 등 대화와 공감의 기회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학교 체육 시설과 도서관 등을 지역민에게 개방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도 활성화시킨다.

그 밖에도 교육장 주민 추천제를 실행에 옮겨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칠 것이며, 승진 제도와 교육전문직원 전형 방법도 개선하여 인사의 투명성을 높인다. 한편, 새로 신설되는 학교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에코 스쿨로 설계되며, 학교 내 생태 정원과 둘레길 조성 사업도 연차적으로 전개한다.

마무리

올해 새롭게 펼쳐질 정책을 중심으로 2015년 교육계획을 일람해 보았다. 여기에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에서 이루어지는 본질적인 정책과 업무는 생략되었다. 중요도가 낮아서가 아니라, 제시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시하지 않았을 뿐이다.

새 교육감 취임 후 우리 경남교육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혁신적으로 보여도 사실은 우리가 놓쳤던 기본의 재발견이라 할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본질의 회복이다.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낯설고 귀찮게 다가올 수 있다. 새 경남교육의 철학을 이해하고 동참함으로써 교육가족 모두가 벅찬 보람을 얻기 바란다.



학생 중심 · 배움 중심 학교교육과정 편성 · 운영

글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초등장학담당 장학관 박혜숙

1. 학교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는 학교마다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사운영의 다양화, 평가방법의 개선, (핵심)성취기준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미래 핵심역량 강화 등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정책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낮은 흥미도, 미래 사회 대비교육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을 중심에 두고 배움을 즐길 수 있는 교육으로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자는 데 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평가 방법의 개선 등 교육과정을 둘러싼 학교 교육시스템의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들도 많아지고 있으며 교사의 적극적인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2015학년도 초등학교 학생중심 · 배움중심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

2. 학생 중심 · 배움 중심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주안점

경상남도교육청이 지향하는 배움이 즐거운 학교 ·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의 정착을 위해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가. 학생 중심 · 배움 중심의 학교교육과정 방향

- 1) 학교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중심에 학생을 두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생의 삶과 성장을 돕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계획하며 실천하는데 중점을 둔다.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전환하여 학생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방법을 계획하고 실천한다.
- 2) (핵심)성취기준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접근, 재구성하여 학생의 미래 핵심역량을 신장하는 데 둔다. 각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꼭 성취해야 할 (핵심)성취기준을 바탕으로 각종 법령이나 정책에서 요구하는 시수를 준수하며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재구성하고, 미래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한다.
- 3) 교육과정의 중심에 수업이 있고, 수업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학교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기초조사부터 평가까지 모든 교육과정이 수업과 별도로 이루어진다.

어지는 행사나 업무가 아니라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교육과정 속에서 계획하고 실천한다.

- 4) 학교교육과정은 전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주도적으로 편성·운영하며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연수·연구 및 수업동아리 활동을 강화한다.

나. 학생 중심·배움 중심의 학교교육과정 준비(11월~12월)

- 1)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구성·운영
- 2) 기초조사
 - 관련 규정 검토: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등
 - 실태 분석 및 조사: 지역의 특수성 조사, 학생, 교원, 학부모의 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학사운영 다양화 등), 전년도 교육과정 운영 평가 결과 분석
 - 시사점 반영: 각 영역별로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사항을 종합하여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검토를 거쳐 각 영역별로 구체화

다. 학생 중심·배움 중심의 학교교육과정 편성(12월~2월)

- 1) 편성·운영 방향 설정: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원칙 수립
- 2) 학교교육과정 시안 작성: 편제, 시간배당, 수업일수 산출
- 3) 시안 검토, 심의 확정: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시안 심의, 검토 확정
- 4) 학년군·학급교육과정 편성: 2월

라. 학생 중심·배움 중심의 학교교육과정 운영(3월~익년 2월)

- 1) 지속적인 교원연수, 수업동아리 활동 강화,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
- 2) 교육과정 편성 계획대로 정상 운영되는가에 대한 수시 점검
- 3) 교육과정 운영 내용과 평가 내용이 일치하도록 유의

마. 학생 중심·배움 중심의 학생평가, 학교교육과정 평가(12월~익년 1월)

- 1) (핵심)성취기준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따른 학생 참여중심, 배움 중심의 수업에 따른 과정중심 평가, 서술형 평가 확대
- 2)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학년군·학급교육과정 평가 실시

3. 학생 중심·배움 중심 교육과정은 교사로부터 시작된다

학교를 정책으로 변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학생참여 중심의 배움이 있는 교육과정 편성과 수업, 과정 중심의 평가 등의 반응을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전문가인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방법의 변화, 과정중심의 평가를 위한 교사간 협력풍토 조성도 중요하다. 교사는 학교교육과정의 자율화를 구체화시키고 실현할 수 있는 열쇠다. 교사의 열정과 노력이 학생이 행복할 수 있는 학생 중심·배움 중심 교육과정의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사항 안내

글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박세권

1. 주기적인 개정에서 수시 개정 체제로!

적어도 제7차 교육과정까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정은 모든 학교급, 모든 교과와 교육과정의 “일시에” “전면적으로” 개정하며, 이와 같은 개정이 몇 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개정 방식의 장점으로는 국가 교육 목표 실현의 용이성, 국가차원의 질 높은 교육과정의 설계, 교육과정 및 학교교육의 질에 대한 국가 차원의 효율적 관리, 교사와 학생의 지역 이동의 용이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을 부분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개정 방식의 경직성으로 인해 적시에 대처하는 기제가 마련되지 못한다는 점과 개정의 절박성이 없는 교과교육과정까지도 일제히 개정이 진행됨으로써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학교급별, 학교별 또는 교과별로 개정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부분만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수시적, 부분적, 지속적 개정 방식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국가·사회적으로 제기되는 교육적 요구사항들을 보다 적극적이고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시 개정 체제는 필연적으로 교육과정 개정 방식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관례적인 특징은 총론 위주의 개정 방식으로 위계적인 개정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즉 총론이 먼저 결정되면 교과별 교육과정은 총론에서 규정되는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기본 편제에 의해 그 학습내용의 범위가 결정되며, 이렇게 결정된 각론을 기초로 하여 교과서가 개발되고 심의를 받게되는 구조이다. 그러나 부분적 수시 개정이 정착되게 됨에 따라 총론 개정과 무관하게 각론에 대한 개정만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교육과정의 개정 없이도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게 되었다. 역으로 각론이나 교과서의 개정이 없이 총론만의 개정도 때로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¹⁾

2.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내용

가. 개정 배경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것임

나. 개정 방향 및 기본 원칙

- 1) 인문·사회·과학기술적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강화
 - 인문학적 소양을 비롯한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한 고교 공통과목 도입
 - 통합적 사고력 함양 등을 위한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과목 신설
- 2)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과정 개발
 -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1) 학교교육과정의 탐색(박제윤)

-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 3)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 핵심원리 중심의 학습내용 감축을 통해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
 - 소프트웨어(SW) 교육 및 안전 교육 강화
- 4)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
 - 흥미롭고 재미있는 양질의 교과서 개발
 - 교원 연수 확대 및 교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전문성 제고
 - 학생부담 경감 및 고교 수업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

다.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정 방향

- 1) 인문·사회적 소양 함양과 인성교육 강화
 - 인문학적 소양 함양 수업 강화 : ‘문학’ 교육을 이룬 중심의 수업에서 감성과 소통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과별로 인문 요소 강화
 - 예술·체육 교육 활성화를 통한 인성교육 강화 : 연극교육 활성화, 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감수성 및 정서 함양
 - 초·중등학교 한자 교육 활성화 : 적정 한자 수 명시 및 교과서 한자 병기 확대
 - 사회적 소양 함양 방안: 고교에 ‘통합사회’ 과목 신설, 한국사 교육 강화
- 2) 과학기술 소양 함양 교육 강화
 - 과학 교육 강화 방안 : 고교에 ‘통합과학’ 과목 신설, 과학수업에서 탐구실험, 연구윤리, 과학실 안전교육 등 강화
 - 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 : 초·중학교에서 SW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는 교육과정 개발
- 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안전 교과 또는 단원 신설
 - 초1~2학년 : ‘안전생활’ 교과 신설
 - 초3~고3학년 : 관련 교과에 ‘안전’ 단원 신설
- 4) ‘범교과 학습 주제’ 개선
 - 교과 수업을 통해 학습 가능한 주제는 해당 교과에 반영하고, 그 외 주제를 범주화하여 15개 내외로 감축

라. 초·중·고 교육과정 운영 개선

- 1) 초등학교
 -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연계 강화 : 내용 체계의 연계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지침 등 개선
 - 초등 1~2학년 수업 시수 증배 :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초등 수업시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 2) 중학교
 - 중학교 ‘편제와 시간배당 기준’ 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에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 지침 제시
 - 자유학기제 취지가 중학교 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적정화하고,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학교생활에서 행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제시
- 3) 고등학교
 - 문·이과 구분없이 기초소양을 기르는 공통과목 및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선택과목으로 구성
 - 특목고 대상 과목은 보통교과에서 분리하여 전문교과로 제시
 - 국어, 수학, 영어 비중 적정화
 - 특성화고 교육과정에서 총론과 NCS교과의 연계

2015학년도 인사관련 변경 사항

1 교육장 공모제 실시

- 공모지역 : 김해교육지원청, 거창교육지원청
- 임용기간 : 2015. 3. 1. ~ 2017. 2. 28.(2년간)
- 자격요건
 -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 재직 중인 자
 - 현임교(기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정년 잔여 2년 이상인 자

2 교장 임용 제청 기준 강화

- 높은 수준의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교장으로 임용
-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는 임용 제청 배제
- 4대 비위 관련자는 말소기록 경과여부와 관계없이 배제

3 신규교사 임용 방법 변경

- 변경 사항
 - 기존 : 3월, 9월 정기 인사 시 임용
 - 변경 : 매월 신규교사 임용
- 기대 효과
 -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도모
 - 신규교사 즉각적인 충원으로 기간제 교사 채용 인원 감소

4 전보 발령 시기 조정

- 변경 사항
 - 기존 : 2월 중순 발령
 - 변경 : 2월 초 발령 예정
- 기대 효과
 - 전보 시기 조정으로 생활 안정 도모 및 신학기 준비 철저

5 파견교사 선발 실기평가 도입

- 변경 사항
 - 기존 : 서류 및 심층면접
 - 변경 : 서류 및 심층면접, 특정 기능이 요구되는 영역은 실기평가 추가
- 기대 효과
 - 실기중심의 수업 시연을 통한 선발로 파견교사의 질 향상 도모

6 기간제 채용

- 가급적 신규 임용 대기자 우선 채용
- 학교급별 해당 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





학교폭력 사례



글 경상남도교육청 상임변호사(학생안전과) 성수민

1. 관련 사례

모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과 B군은 시비 끝에 서로 싸움을 하다가 A군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싸움 직후 학생간 화해 및 보호자간 합의가 이루어져서 양 측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해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위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각 호의 조치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의결하도록 되어있다. 이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 조치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례의 경우 A군이 B군을 폭행한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B군이 A군을 폭행한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대부분 서로 가해학생이 됨과 동시에 피해학생이 된다.

간혹 당사자들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폭행에 대한 방어가 단순히 막는 차원의 방어가 아니란 공격행위라면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더 많이 다친 사람이 피해학생이 되고 상대방이 가해학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의 정도는 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할 때 참고 및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일 뿐이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QnA」, 교육부, 2012, 107p)

사랑으로 사람다움을 채워갑니다



요즘 교실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머리는 큰 데 가슴은 아직 열리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보인다. 아이들의 닫힌 가슴을 열기 위해 인성교육을 실천하려고 하면 ‘딱딱함’이 먼저 생긴다. 개인적으로 3년이나 인성부장을 하면서 때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지도가 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결국 강제 전학이나 징계 등으로 씁쓸하게 마무리 되는 일을 많이 경험하였다. 그래서인지 누구보다 인성교육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지만 인성교육은 쉽고도 어려웠다.

1. 쉽고도 어려운 인성교육! 첫 번째 고민 -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인성교육이 강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기에는 많은 고민이 뒤따랐고, 많은 이론과 교육부의 현장 연구논문을 찾으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 고민이 ‘인성교육!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였다. 동학년 교사들과 지속적으로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 답을 ‘핵심인성역량’과 그를 통해 길러질 수 있는 ‘핵심인성덕목’에서 찾게 되었다. 원래 본교에서 실천하고 있던 황산10德에 동서고금을 통해 지향했던 인성역량을 접목하였고, 그를 통해 정리된 6개의 핵심인성역량과 11개의 핵심인성덕목을 다시 학생발달단계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학년군별로 나누었다.

【 LOVELY 황산 학년군별 인성교육 핵심인성역량과 핵심인성덕목 】

학년군 공통	1,2학년군
	의사소통능력
	3,4학년군
자기 이해 및 자기존중, 감정 조절	자연친화능력
	5,6학년군
	시민적 참여능력, 다문화시민성



2. 쉽고도 어려운 인성교육! 두 번째 고민 - 교과 시간에는?

가르칠 내용을 결정하고 나니 이제 교과 시간에는 인성교육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다. 나는 4학년 학급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활동이 왕성해지는 학생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활동으로 인성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인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3,4학년군 교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총 4개 단원 20차시 분량으로 구안하였으며, 학기 초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관련교과의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에 필요한 시수를 확보하였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보니 학생용 교재가 필요하게 되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이었으므로 다시 3,4학년군 선생님들께서 힘을 모아 ‘자연아 함께가자!’라는 자연친화형 학생용 교과 인성교재와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였다.

【 3,4학년군 학생용 교과 인성교재의 편제 】

구분	유형	프로그램	교재명	인성역량	인성덕목	단원
3,4 학년군 행복 교과서	자연 친화형	GREEN	자연아 함께 가자!	자연친화	존중/협동	1. 동물과 더불어 존중을 배워요
				자연친화	협동	2. 흙과 함께 자연과 소통해요
				자연친화	책임/효	3. 식물을 기르며 책임감을 길러요
				자연친화	존중/협동	4. 물과 친구 되어 서로 존중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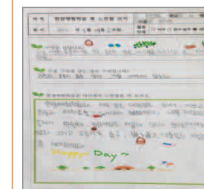
자연 소재와 환경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놀이 및 체험활동을 강화하였고 팀티칭을 적용하여 지도하였는데, 아이들은 모든 활동에 매우 즐겁게 참여하였다. 놀이나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을 존중하고 책임지는 법을 스스로 배웠으며 친구와 협동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다.

3. 쉽고도 어려운 인성교육! 세 번째 고민 - 창체 시간에는?

우리 학교는 학기가 마무리 되는 7월 말과 12월 말에 일주일씩 동아리 집중 운영주년을 설정하고 학년군별로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1~3교시에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도 ‘행복한 이야기가 있는 리코더부’를 개설하고, 일반적인 리코더 연주활동에 모듬 규칙 만들기, 합주 활동하기 등을 더하여 자기 이해 및 협동, 질서 등의 덕목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활동에 학년군별 인성교육을 접목하여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하였다. 즉, 현장체험학습에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더하여 학교 밖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활동을 실시하였다.

【 살터배움터-『삼감도에 문화체험으로 생명존중의 마음을 길러요』 프로그램 활동과정안 】

사전 활동(1차시)	체험활동(5차시)			사후활동(2차시)
서운암의 가을 들꽃 알아보기 / 가을 생 태계 영상을 보며 생 명존중의 의미 이야기 하기	현장체험활동의 규칙 알기 / 도자기 제작 과정 이해하기 / 들꽃 무늬 구상하기	흙 속 세계 탐험하기 흙 만져보기 도자기 무늬 새기기	카메라 놀이, 세탁기 놀이 등 다양한 놀이 놀이를 하며 자연에 서 배운 존중의 의미 이해하기	모듬별로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자연에 서 알게 된 고마움과 생명 존중의 마음 다 지기
				

4. 사랑으로 사람다움을 채워줍니다.

인성이 강화된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과정은 참 어려웠다. ‘고민해야 할 것도 많고 공부해야 할 것도 많고...’ 그래도 아이들이 수업을 하며 “참 재미있어요.”라는 말을 할 때면 그 모든 어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니 신기할 뿐이다.

황산의 교육은 사랑이다. 이 사랑으로 바른 인성을 가꾸어 사람다움을 채워가는 노력하지 않은 인성교육을 위해 오늘도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마음을 열어본다.

도서관 활용을 통한 교과연계 진로독서 수업



진로독서 프로젝트 수업을 시작하며

진로는 한 개인이 일생 동안 일과 관련해서 경험하고 거쳐 가는 모든 체험이며 나아가 각 개인이 자기가 설정하는 진로에 접근하며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이다. 생애 시작점에 서 있는 학생들에게 일과 직업의 세계가 중심이 되는 의도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꿈과 끼를 발휘하며 행복한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진로독서 프로젝트 수업의 실제

학교 도서관을 활용한 국어시간 진로독서 프로젝트 수업은 학교 현장에서 처음 시도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특히 학기 말 정기고사 후 방학식까지 애매하게 주어지는 수업의 공백기를 메꾸고 동시에 진로독서 프로젝트를 적용해 보기 위해 진로영화를 감상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실제 국어과 수업에서 진행했던 진로독서 프로젝트 수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순	활동내용	차시	수업형태	특징	비고
1	세 일간이 감상	1~2	전체수업	진로영화	기말고사 후
2	진로영화 속 키워드 찾기 그래프 토론	3	모둠활동	윈도우 패닝진로탐색 준비	
3	진로도서 조사 및 목록 작성	4	개별활동	직업군 선정자료	교사 피드백
4	직업군별 책읽기	5	모둠활동	직업군별 같은 책, 비슷한 책 읽기	같은 책 권장
5	진로독서 후 워크시트 작성하기	6~8	모둠활동	워크북을 활용한 독후 활동	동일 직업군
6	독후 활동	9	모둠활동	저자, 전문가 인터뷰 및 소감쓰기	동일 직업군

1. 진로영화 감상 활동

가. 영화 제목 : 세 일간이(감상 시간: 2차시)

나. 영화 내용 : 공과 대학에 재학 중인 세 친구를 중심으로 학문과 우정, 꿈과 진로에 대해 재미와 감동으로 진행되는 영화

2. 진로탐색 활동

가. 윈도우 패닝활동으로 핵심어 정리하기

나. 진로관련 핵심어 분류하기

- 윈도우 패닝 중 관련 단어를 4,5개의 키워드로 분류하기
- 포스트잇으로 내용 정리 후 학습 판에 붙이기
- 칠판이나 벽에 붙이고 모듈별 발표하기
- 경청 후 자신의 모듈과 비교하며 토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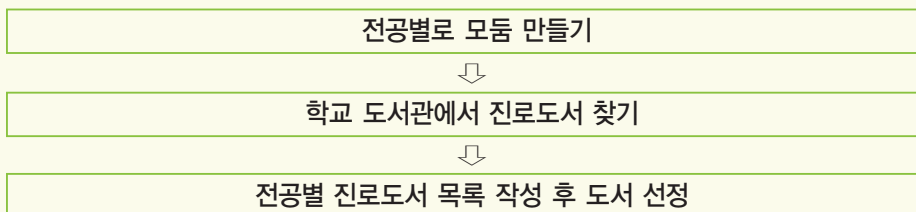
다. 그래프 토론으로 진로탐색하기

- 핵심 키워드 전지 위에 가로로 붙이기
- 각자의 줄을 4,5단계로 보고 짚짜기
- 그래프 연결하기
- 포스트잇에 생각 적어 점 아래 붙이기
- 모듈끼리 돌아가며 대화하기

라. 진로탐색의 핵심어 찾기

- 학교생활, 개인 활동, 공부, 독서, 동아리, 체험, 과제연구 등을 중심으로 진로와 관련되는 핵심 단어를 찾아보기
- 15개 이상의 구체적인 단어를 찾게 함.

마. 진로도서 목록 만들기



활동 과제 ■ 영화를 보고 기억에 남는 단어를 윈도우 패닝에 적어 넣기				
모둠 명	■ 40살이라니! 모듬원: 강 00, 김 00, 이 00, 조 00, 송 00			
■ 진로영화의 키워드를 떠올리고 정리한 후 청상 무늬 학습지에 적어 넣기				
왕두	민트소스	사랑	피아	우정
라주	시험			전공
바이러스				공대
명문대학	ICE		4. 평생 하고 싶은 일	1. 10년 후 세 친구
란초	진공청소기	자살	3. 가슴 뚫다.	2. 사진기

<윈도우 패닝활동>

진로독서 프로젝트 수업의 운영을 통해서

진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기이해를 통해 면밀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진로탐색 영화가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적절하였고 학생들의 흥미 수준에 적합하였다. 진로독서 프로젝트 수업은 진로교육을 독서와 연계하여 효과적이었으며 혼자가 아닌 진로 모듈을 통한 수업 진행으로 동료와의 협력을 통한 과제 해결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에도 효과적이었다. 국어과 수업이지만 영화, 독서, 토론, 글쓰기 활동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진로독서프로젝트 수업활동을 학년말 자기소개서와 연계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었고 전공별, 직업군별 진로도서를 도서관에 제한하여 선택하기보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사전 조사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도서를 제공한다면 더 나은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놀품 체(體)·인(仁)·지(知) 3색 금병교육

글 진영금병초등학교 교장 노재원

1. 놀품 체인지 금병교육을 말하다

교육은 한 개인을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개인이 속해 있는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다운 행동 특성과 능력을 지니도록 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는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휘하여 적응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작용이다.

2009 개정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창의·인성교육 및 학생의 꿈과 끼를 가꾸는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추구하는 교육본질 중심의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꿈나르미학교를 운영해 왔다.

놀품이란 사전적 의미로 앞으로 좋게 발전할 품성이나 성품을 말한다. 본교의 놀품 체인지 교육은 학생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뜨거운 열정으로 튼튼한 체력, 가슴 따뜻하고 온화한 인성, 창의적이고 냉철한 지성을 가진 금병어린이로 Change(변화)시켜 나감으로써 좋은 품성을 지닌 미래의 창의적 리더를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뜻한다.

놀품으로 change

체(體)인지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몸튼튼!! 마음튼튼!!
인(仁)지	나눔과 배려의 실천적 인성교육
지(知)인지	교실수업개선으로 실력 UP!! 학력 JUMP!!

➡
👍
창의적 글로벌 리더 육성

2. 놀품 체인지 금병교육을 펼치다

서로 다른 색깔과 개성을 가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한 발 다가서는 교육,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조성으로 꿈과 끼가 자라는 학교다운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교육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성취기준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학교폭력 및 학교부적응학생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을 전개하고 있다.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여섯 빛깔 수업동아리 운영

본교는 핵심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토의, 토론, 실습 중심의 교육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배움이 즐거운 교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강점과 약점을 SWOT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자기 수업브랜드를 설정하였다. 수업브랜드가 같은 교사들이 모여 전문적으로 수업을 연구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 여섯 빛깔 수업동아리를 조직·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업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여섯 빛깔 수업동아리는 ①생각쟁이-토의·토론학습, ②수업탐험대-프로젝트학습, ③플러스UP-융합학습, ④수업에센스-협동학습, ⑤아이디어뱅크-창의성학습, ⑥수업레전드-스마트학습으로 조직하여 월1회 동아리별 수업에 관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교수·학습과정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별따라 친구따라~ <어깨동무 천상열차> 학생동아리 운영

2014년 4월 경남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천체관측 학생동아리 <어깨동무 천상열차>를 운영하였다. <어깨동무 천상열차>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위주의 천체관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쉽고 재미있게 천문과학을 즐기도록 하며 건강한 과학문화를 형성하여 미래 우주과학의 발전에 작은 디딤돌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참여시킴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부적응 학생의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교 5-6학년 24명으로 구성된 <어깨동무 천상열차>는 굴절망원경, 반사망원경 등의 천체관측장비를 갖추고 연중 다양한 관찰체험활동(▶계절별 별자리 관찰하기 ▶달 표면 관찰하기 ▶태양 흑점, 태양계 행성 관측하기 ▶천문대 견학 체험활동하기 등)과 자기주도적 탐구활동(▶해모둠-태양 흑점의 개체 수 변화과정 탐구하기 ▶달 모둠-달의 특정 무늬를 볼 수 있는 날 탐구하기 ▶행성모둠-화성이 움직이는 길 탐구하기 등), 더불어 함께 즐기는 봉사활동(▶비회원 친구 손잡고 함께 활동하기)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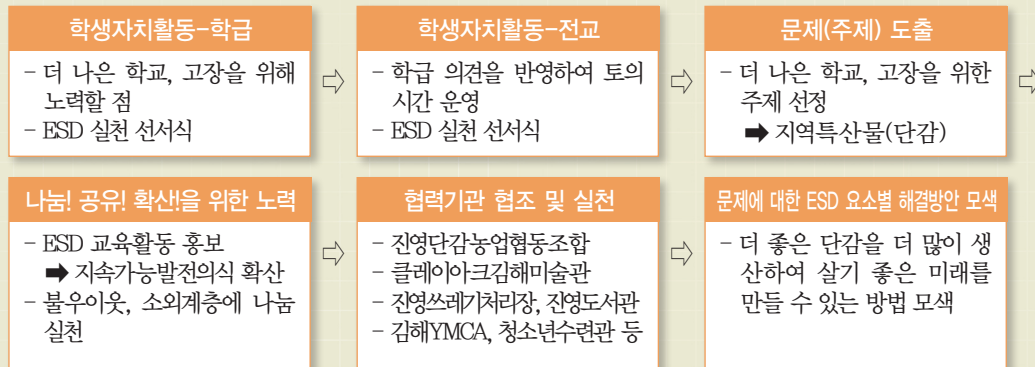
월 2회 학교 옥상에 모여 북두칠성을 이용한 북극성 찾기, 겨울-봄철 별자리를 찾으며 밤하늘의 정취를 즐기고 천체망원경을 이용하여 목성, 화성 등 태양계 행성과 계자리 산개성단을 관측하며 보름달이 지구 그림자 뒤로 숨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태양계와 우주의 신비를 체험함은 물론 함께 하는 친구들과의 우정도 함께 키워나간다.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육공동체가 만족하고 학교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맞춤형 브랜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였다.

지역의 특산물인 단감을 주제로 하여 우리 고장과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발전을 선도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설정하였다. 지역의 특산물인 ‘단감’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경제에 대한 현실감을 기르고, 다양한 체험활동과 문화예술활동 참여로 사회문화적 공감을 기르며 단감 생산과 직결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고자 하였다.



단감따기 체험학습, 진영단감 홍보하기, 단감 관찰하기, 쓰레기 사용량을 줄여 깨끗한 환경만들기, 진영단감축제 참여하기, 가족과 함께하는 단감요리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미래지향적 사고가 형성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가치의 이해가 이루어졌으며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클레이아크미술관, 진영단감협동조합, 단감농원 등 기관별 유대관계 및 협조체제를 형성하고 학부모, 지역CRM, 전문가들에게 학교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해 줌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관점을 제시해 주어 지속가능한 사회의 인식 증진을 가져왔다.

이 외에도 진영금병초등학교에서는 많은 활동을 통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인전 50권 읽기, 학생자치법정 운영, 7560+ 선도학교 운영을 통한 체육활동의 생활화 등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꿈과 희망을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3. 행복을 나누다

‘옥불탁 불성기 인불학 부지의(玉不琢不成器 人不學不知義)’라는 말이 있다.

옥이 땅속에 묻혀 있으면 돌멩이에 불과하다. 이것을 깨내어 잘 다듬는 세공사의 노력이 있어야 사랑받는 옥구슬로 변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선생님이 좋은 교육으로 다듬어야 사회의 구성원으로 제 몫을 다하며 쓸모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진영금병초등학교는 전문성을 고루 갖춘 우수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하나 되어 참다운 사람을 다듬어가는 행복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투명한 학교 경영과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으로 웃음 가득한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고 있다.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

글 거제 하청중학교 교감 김재중

1. 들어가면서

창의성, 존중, 배려,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능력 등 미래 핵심 역량 중심의 진정한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 교육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서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배움과 협력이 있는 경남형 미래학교 구현에 앞장서는 하청중학교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2. 펼치면서

하청중학교는 거제시 하청면 소재의 전교생이 100명이 안 되는 작은 학교이다. 학부모의 약 60%가 농, 어업에 종사하며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는 낮은 편이나 교육활동 및 교육과정 다양화에 대한 지원 의지가 강하며, 교육에 대한 교사의 남다른 열의는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작지만 강한 학교이다. 2015학년도 행복학교 선정은 학부모와 교사의 그 열정이 어우러져 만들어 낸 결과였다. 구체적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민주적인 학교에서 학생이 학교의 진정한 주인으로 서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말에 반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당연시 되는 이 말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학교가 얼마나 있을까? 교과외의 선정과 교과 계획은 교사의 고유한 영역이었다.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등장하는 ‘시청자의 의견’ 코너를 보면서 우리의 교육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답답하여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행복학교에 선정되고 최우선 과제로 둔 것이 학교의 주인 찾기이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학교 비전을 만들고, 교직원,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행복학교 추진위원회의 조직을 통해 행복학교의 기본 철학을 공유하고 교육에 관한 의견을 실제 교육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요자의 특성에 따른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학교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자치위원회를 통해 학생이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자율과 책임이 있는 학생 자치문화를 형성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다.

나. 배움 중심 교육과정으로 거듭나다.

학생이 행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해 배움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배움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다.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은 그 가르침을 따른다는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에게 배움으로써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자 자유학기제 실시, 블록 타임제 운영, 교과 집중 이수제를 실시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습자 중심의 체험활동과 교수 방법의 변화를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 학습 부담을 줄이고 과제 완성에서 오는 성취감 향상 및 자신의 개성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인재로의 성장을 꾀할 것이다.

또한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오는 체험 및 참여형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며 이는 학생의 진로 탐색 및 공고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평가체제 또한 학생의 참여와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고 창의적 사고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움과 성장 중심으로 전환을 꾀해 서술형, 논술형 수행평가를 강화하고 교과 융합평가의 비중을 늘려갈 것이다.

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구축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다.

배움 중심 수업 교사 협의회를 조직해 배움 중심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이해와 역량을 강화하고 동료 장학 및 수업 혁신 교사 동아리 지원, 고경력 교사와의 수업 커플제 운영 등을 통해 수업의 전문성 및 수업의 질을 높임으로써 수요자의 교육 만족도 향상과 공교육 불신 해소에 앞장설 것이다.

라. 소통과 배려의 공동체 학교로 우뚝 서다.

상벌점제 및 학생 자치 법정을 통해 학생 인권 및 민주 시민으로의 소양을 함양하고 학생 자치 문화의 발전을 꾀하며, 인성 교육의 강화, 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진로 적성 검사 및 성격 유형 검사 등을 상담에 활용함으로써 학교 적응력 향상 및 자존감 회복,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 상호 이해를 토대로 한 공감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조성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회 상담 강화 및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학부모 행복교육 도우미 등의 운영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고 참여를 유도하며, 학교교육 만족도와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3. 나오면서

하청중은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는 공교육 만들기에 앞장 설 것이며 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순차적으로 늘려가며 자유학기제를 준비하였으며 다양한 연수 및 수업 연구 활동을 통해 교원의 수업 능력 향상에 힘을 써 왔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인성 교육의 실시 및 사제동행을 통한 소통의 장 형성, 교사의 열정과 학생의 열의는 교내외 대회에서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기량을 뽐내고 지역 및 전국 대회 수상과 같은 성과를 거두는 근간이 되었다.

하청중학교의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배움과 협력이 있는 경남형 미래학교 구현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하청중학교의 행복한 학생과 함께 여는 신뢰받는 공교육 만들기에 지역사회와 교육 공동체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하는 바이다.



스마트 도구를 활용한 학생이 즐거운 프로젝트 학습

글 진주제일중학교 교사 송은주

1. 들어서며

첫 시간부터 하품하며 무기력함을 보이는 아이들, 교사의 가르침에 반응이 별로 없는 아이들을 매일 마주 대하는 것만큼 교사로서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아이들의 지루한 표정을 볼 때면 힘들었고, 제 수업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는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실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사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 미래 인재상이 바뀌고 있는 지금 디지털 세대(Digital Natives)인 21세기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업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교사 중심이 아닌 학생들이 전체 학습 과정의 주인이 되어서 즐겁게 참여하고 협업하여 활동할 수 있는 프로젝트학습을 소개합니다.

2. '우리 지역 소개하기' 프로젝트 학습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 다양한 스마트 학습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일 교

과 영역에서 벗어나 영어의 4 skill을 모두 활용한 종합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목표로 두고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프로젝트학습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글 행아웃을 통한 동기 유발』

구글 행아웃은 최대 10명까지 화상 채팅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구글 행아웃에 우리 지역에 여행 온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을 보여 주며 동기 유발을 합니다. 화상교류를 통해 외국인에게 우리 지역에 관해 궁금한 것을 직접 물어보고 대답한 내용을 메모하도록 합니다.

2) 『모둠별 주제 확정하기 및 역할 정하기』

4명으로 구성된 모둠을 정하고 각 모둠에게 '외국인에게 우리 지역 소개하기'라는 과제를 제시해줍니다. 모둠별로 학습 커뮤니티 wedorang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아 주제를 정하도록 합니다. 이 때 교사는 주제가 모둠별로 서로 겹쳐지지 않도록 하며, 추천할 만한 주제를 댓글로 제시해 줍니다. 모

둠별로 주제가 정해지면 구성원 역할을 정하도록 합니다. 책임감과 리더십이 강한 학생이 모둠장을 맡도록 하고 각각 자료 탐색 및 수집, 프리젠테이션 자료 작성, 발표자료, 대본 작성 등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여 서로 협업하여 프로젝트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협업도구를 활용하여 발표 자료 만들기』

주제와 역할이 정해지면 전체적인 스토리 보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학습 커뮤니티 wedorang에 기록하도록 하고 교사가 댓글을 통해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탐색하고 수집한 내용을 wedorang에 탑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업 도구인 ‘구글 프리젠테이션’ 또는 ‘프레지’ 도구를 사용하여 발표 자료를 제작하도록 합니다. 구글 프리젠테이션과 프레지에서 공동 작업자에 선생님을 초대하도록 하여 교사가 모둠별 발표 제작 과정을 확인하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발표 대본 만들기 및 모둠별 발표하기』

모둠별로 자신들의 완성된 작품을 보고 발표 대본을 만들도록 합니다. 이때 영어 능력이 미흡한 학생들은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아 발표 대본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학생들의 발표 자료를 동영상으로 담아 학생들이 매 발표마다 발전하는 모습을 보관하여 차후에 보여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소감 표현하기 및 상호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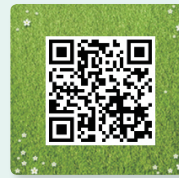
학생들은 wedorang을 통해 각자 발표 소감을 작성합니다. 친구들은 댓글 달기를 통해 친구의 잘한 점

을 칭찬해 주도록 합니다. 발표 자료는 QR코드로 만들어 wedorang에 탑재하도록 합니다. 평가를 할 경우 wedorang에 있는 학생의 학습 참여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탑재된 모든 자료가 평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주성 소개하기



우리 지역 음식 소개하기



진양호 남강댐 소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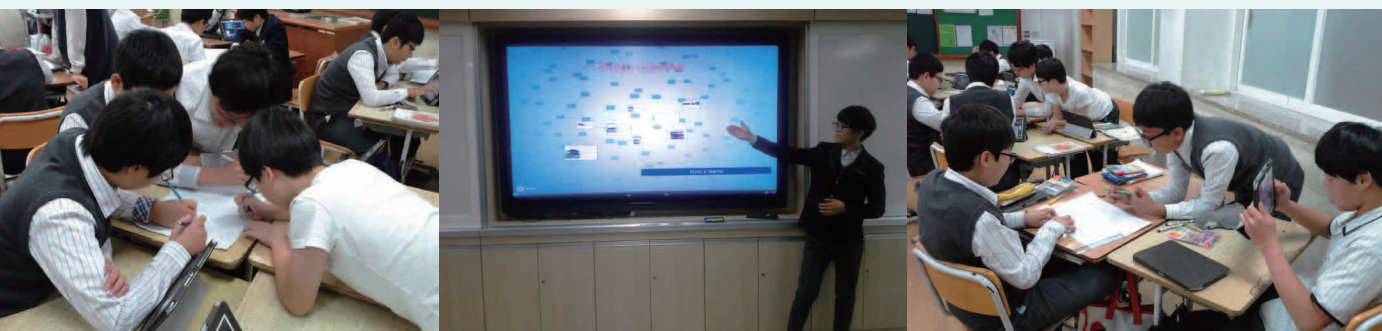
3. 나가며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말하기 수업에 소극적이던 학생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고, 다른 친구들의 작품에 피드백을 주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의사소통능력과 표현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발표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참여하고 협업하는 능력이 증진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수업 소감입니다.

‘수업에 대한 흥미도 생기고 집중도 잘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공부도 더 쉬워졌어요. 자료를 직접 찾아보고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이 재미있어요.’

이제 학생들이 즐거운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21세기 교사가 되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줄 아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이웃, 다문화교육은 상생의 열쇠

김해내동초등학교 **이유경** 선생님을 만나다.

중도입국학생의 한국어를 가르치고 다문화 가정학생의 교육을 도와 편견과 어려움을 없애고 상호존중을 나누는 이유경 선생님과 만남

Q. 먼저 선생님 소개와 현재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현재 김해내동초등학교에서 중도입국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정(Korean as Second Language)을 운영하는 일을 맡고 있는 예비학급 전담교사입니다.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중도입국한 학생 2명을 국어, 사회, 도덕 같은 일반 교과 수업시간을 활용해서 한국어 수업을 하는 거죠. 중도입국학생의 한글을 가르치는 한편 김해, 창녕, 양산 지역의 중도입국학생의 편입학을 지원하고 한국어 능력을 컨설팅하여 한국어 강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학급 전담교사와 더불어 이중언어강사 운영과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를 맡아 다문화교육을 수행하고 있지요.

Q. 그렇다면 다문화교육과의 인연은 언제부터 인가요?

A. 2009년 진영대창초등학교에서 맺은 다문화교육과의 인연이 올해 새학기로 옮기면서도 사람보다 다문화교육전문가가 간다는 말이 먼저 도착하다보니 예비학급 전담교사 업무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정학생 이중언어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도 참여했었구요. 그래서 중도입국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Q. 예비학급 전담교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A. 예비학급이란 중도입국학생이 한국말과 한국문화의 이해라는 기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교육 시스템에 편입할 때 오는 학력과 문화적 충격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학교 교육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과정을 일주일에 10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된 2012. 교육과정 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학급입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런 교육과정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계시고 또 실제 일반학급 담임교사는 학급에 주어진 스무명 넘는 학생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급경영을 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담교사나 예비학교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죠.

Q. 중도입국학생이 공교육 시스템에 적응하는데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A. 전학을 온 아이가 새 학교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대부분의 중도입국학생들은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가 먼저 한국에 경제적인 이유로 들어오고 가족과 떨어져 지낸 시간이 많은 데다가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아이를 학교에서 선풐 받아주지 않고 한글 읽을 정도는 배워서 오라고 돌려보내기 때문에 입국한 날짜로부터 짧게는 두어달 길게는 1년이 넘도록 공교육 시스템에 들어오지 못하는 점입니다. 더구나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이 학생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탈락할 것을 예상하여 편입학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답니다.

Q. 중도입국학생의 한국어 실력을 키우는 선생님만의 방법이 있으신지요?

A. 중도입국해서 초기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시기에 한국어를 배우는 일이 쉽고 재미있으면 한국어 실력이 쑥쑥 늘어나고 반대로 문법이나 지식 중심의 한국어를 가르치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싫어하게 되죠. 중도입국학생이라도 개인적인 특성이 달라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 4기능을 모두 골고루 잘 활용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쓰기를 싫어하고 어떤 학생은 어색한 발음이 부끄러워 말하기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기 보다는 학생의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쓰기가 필요한 친구는 대화하면서 일기쓰기로 담화문을 쓰게 하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친구는 재미있는 놀이를 접목시켜서 실제 대화 상황처럼 많이 말하게 만들지요.

Q. 다문화교육 활동 중에서 겪었던 에피소드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A. 중도입국학생들에게 매일 한 번씩 한국문화생활과 또래 친구들이 체험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기획해서 운영하는데, 밀양치즈스쿨에 체험갔을 때 중국에서 온 학생과 일본에서 온 학생, 그리고 우리집 아이들 2명 이렇게 한·중·일 다국적 친구들이 모여서 일본어도 쓰고, 중국어도 쓰고, 한국어도 쓰고 그래도 안 되면 영어도 쓰고 말로 안 통하면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소통하는 걸 보니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자연스럽게 국경을 넘어 친해지는 것 같아 보기 좋았어요.



Q. 이번에 수상하신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다문화교육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이 상은 어떤 상인가요?

A.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은 매년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중앙다문화센터가 주관하는 대회로 교육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한 교육 사례에 대해 시상하고 공유하는 대회입니다. 2011년 제3회 대회에 이어 올해 제6회 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문화교육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을 지난 6년 동안 함께 겪은 사람으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더 연구해야겠다는 겸허한 마음이 듭니다.

Q. 올해 선생님께서 실천하신 다문화교육 활동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예비학급 운영을 통해서 중도입국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더해주고, 베트남 이중언어강사를 활용하여 살아있는 베트남 상호문화이해교육을 통해 상호문화이해능력을 곱하고, 교과와 연계한 다문화이해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복지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제거해주었습니다. 나아가 다문화이해연수와 강사활동을 통해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인권 나누기를 통해서 자아존중감으로 부터 출발해서 다른사람을 상호존중하는 인권으로서의 다문화교육의 첫걸음을 내딛은 한해였습니다.

Q. 앞으로의 각오나 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2015년에도 예비학급 전담교사를 맡게 되어 중도입국학생들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학습자료를 만들고 또 교과학습과 한국어 학습을 병행하는 수업방법에 대해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며

글 진주 문산초등학교 교사 김혜영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허투루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세요. 죽음의 순간은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좋은 인생입니다. 늘 오늘의 삶이 만족스러우면 그게 곧 행복한 인생이지요.

- 법륜 스님의 『인생 수업』 중에서

작년 이맘 때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발견하고 샀던 법륜 스님의 『인생 수업』. 1년이 지나도록 우리 집 책꽂이 한 칸에 꽂아두고 읽지를 못했다. 그리고 얼마 전, 이제야 읽게 되었다.

유난히 바쁜 한 해를 보낸 지난 2014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었던 기억만이 떠오른다. 새로운 업무를 맡아 숨 가쁜 일상 속에서 책 한 권 읽을 여유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러한 새로운 경험들이 나에게 인생 수업이 되어 나를 좀 더 성장시킨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다.

스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 죽음의 순간이 찾아올지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내일 당장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과연 행복할까? 물론 최선을 다해 오늘을 보내겠지만 이러한 마음이 반복된다면 결코 삶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삶을 찾아가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오늘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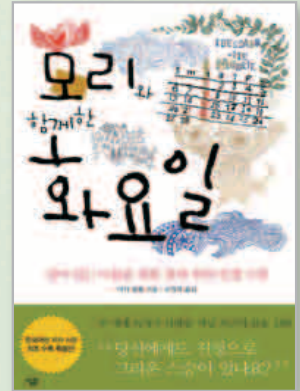
이제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이제 나는 올 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 가정에 좀 더 충실하고 싶다. 이제 겨우 돌 지난 아들을 바쁘다는 핑계로 친정어머니께 너무 전적으로 맡긴 것 같다. 그래서 올 해는 엄마의 사랑을 듬뿍 느끼며 자랄 수 있도록 되도록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고 싶다.

그리고 책을 가까이 두는 한 해를 보내고 싶다. 요즘 내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우리 교육청의 새로운 시도, 행복학교이다. 행복학교에 대한 연수를 여러 번 받아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이 새로운 시도에 동참하고 싶다. 얼마 전, 한 매체를 통해 『학교의 고백』과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라는 책을 알게 되었다. 『학교의 고백』은 아무도 몰랐던 교육의 진짜 이야기, 행복한 학교로 향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들어 있는 책,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는 ‘학교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획기적인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하는 책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선 이 두 책을 구입해서 읽고 행복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책도 읽어보고 싶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하며 이렇게 한해를 계획하는 이 시간이 소소하지만 참 설레고 행복하다. 오늘의 이 시간이 이렇게 만족스럽고 행복하듯 을미년 한해도 하루하루를 만족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책 /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미치 앨봄 / 산림 / 2010

스승과 제자, 그 특별한 인연



글 창원 호계초등학교 교사 성원정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그리운 스승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루게릭병을 앓으며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저명한 사회학 교수가 있다. 그는 보스턴 교외에 살면서 숨을 들이쉬고 다음 숨을 내쉴 때까지 숫자를 헤아리며 자신의 죽음이 어디까지 가까워졌는지를 가늠해 본다. 그리고 그에게는 디트로이트의 한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는 숨 가쁜 삶을 살아가는 제자 하나가 있다. 제자는 학창 시절 교수의 수업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강하고 열정적으로 꿈을 키워가던 학생이었다. 하지만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때문에 졸업한 후에는 스승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고 연락조차 하지 않고 살게 된다. 그러다 우연히 텔레비전을 통해 삶을 끝마쳐가는 스승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옛 스승, 모리를 찾아가게 된다.

이 책은 바쁜 일상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이 죽음을 앞둔 스승과의 만남을 통해 삶 속에서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제자 미치는 서너 달에 걸쳐 매주 화요일마다 스승 모리를 찾아간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 가족, 자기 연민, 사랑 등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대화 주제로 삼아 삶의 의미를 나누며 영혼을 치유해간다. 스승은 삶을 되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제자는 삶을 되돌아보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자신이 놓치고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새롭게 삶을 설계한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인연과 마주하게 된다. 그 중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아주 특별한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스승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는 내내 학창 시절의 선생님들이 떠올랐다. 나에게 진정으로 그리운 스승이 있는가? 또 나는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그리운 스승이 되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나의 스승님께 숨 가쁜 일상에 잠시 심표를 찍고 그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던 안부 인사를 여쭙어 보아야겠다.

인성교육중심수업 실천을 위한 함께 배우고 나누는 배움공동체, 교사 수업연구 동아리 ‘두+ 드림(Do and Dream)’

글 함안 호암초등학교 교사 이해점

‘두+ 드림(Do and Dream)’ 수업연구 동아리는 함안 호암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인근 학교 교사들이 좋은 수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서 구성된 수업연구 동아리로,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두드림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해 그 성과를 일반화하여 교육부 주최 인성교육중심수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 동아리로 선정되었다.

두+ 드림(Do and Dream)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두드림 프로그램은 수업 내용에 인성교육 7대 핵심덕목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학생참여를 촉진하는 수업모델로 배려와 나눔의 행동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3~4학년군 도덕과 핵심성취기준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하여 수업내용, 수업방법, 평가방법을 개선 할 수 있는 수업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적용해 보았다. 그런 다음 타 교과에도 모델을 적용해 보며 학생들의 변화모습을 관찰·기록하여 인성교육 중심 수업모델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다.

3·4학년군 두+ 드림 프로그램, 이렇게 구성되었어요.

학기	단원	차시	학습주제	개발자
3-1	4.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2/4	생명에 대한 바른 태도	김미정
3-1	3.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	4/4	가족 사랑의 실천	변은정
3-2	2. 너희가 있어 행복해	3/4	좋은 친구가 되려는 마음	이화영
3-2	8. 자랑스런 대한민국	3/4	대한민국 알리기	이영은
4-1	1. 최선을 다하는 생활	4/4	성실하고 정직한 생활	성복선
4-1	3. 더불어 나누는 이웃 사랑	2/4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기	이해점
4-2	6. 내가 가꾸는 아름다운 세상	4/4	녹색 생활 실천하기	공관석
4-2	8. 다양한 문화, 조화로운 세상	4/4	하나 되는 대한민국 만들기	김애포



게임을 통한 참여와 협업 중심 즐거운 수학수업



TGT 협동 학습을 통한 인성 함양



하브루타식 문제해결 (짝토의) 학습 적용



통합교과 인성중심 짝 토의 수업



역사 토의·토론 수업으로 긍정적 소통능력 기르기

함께 성장한 우리들의 수업 이야기

우리 동아리 회원들은 지난 1년 동안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며 부단히 노력한 한해를 보냈다. 수업 방법에 있어 학생 참여와 협업 수업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짝 활동, 모둠 활동 시 서로 양보하기, 마음 헤아리기, 도움주기 등을 강조하여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닌 자신과의 경쟁을 강조하고 공동사고를 통한 의사소통능력 향상 및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동아리 회원들의 학급에서는 배려와 나눔의 행동이 습관화된 기본 좋은 학습 분위기가 형성되어 모두가 함께 공부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책을 만나다



말 안 듣는 아이들의 숨은 비밀

박혜원 저 | 아주좋은날 | 2014년 12월

요즘 엄마들은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미리미리 알아서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준다. 저자는 원칙 없는 엄마와 저항하는 아이의 기싸움은 결국 더 고집 세고, 더 말 안 듣는 아이로 만들게 된다고 말한다. 아이의 기분과 비위를 맞추고 휘둘리는 엄마는 오히려 짜증과 고집을 늘려줄 뿐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말 안 듣는 아이의 행동과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피고, 이미 몸에 밴 나쁜 행동이나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바람직한 행동과 좋은 습관을 키워줄 수 있는 칭찬의 기술과,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기질을 좋은 강점으로 만들어주고 자존감을 북돋아줄 수 있는 양육 기술을 제시한다.



N형인간

조관일 저 | 현문미디어 | 2014년 10월

명작《빨간머리 앤》에서 건져 올린 인성의 조건 『N형인간』. 기업의 CEO들이 한결 같이 원하는 인재상의 조건은 무엇일까? 바로 '인성'이다. CEO들은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능력은 오히려 해악'이라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삭막한 비즈니스계의 신 핵심인재상으로 'N형인간'을 제시한다. 'N형인간'은 저자 자신의 오랜 경제경영과 자기계발 노하우를 쏟아 부어 응축한 개념이다. 저자는 오랜 탐색 끝에 '인간성 좋은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의 모델로 명작 속 주인공 빨간머리 앤을 선택하고, Nice라는 단어를 결합하여 'N(앤)형인간'으로 칭하였다. 실제 사례들을 알기 쉽게 풀어내 N형인간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행동 지침을 제시한다.



농부로 사는 즐거움

폴 베델 외 | 갈라파고스 | 2014년 9월

시간과 돈에 쫓겨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전하는 소박한 삶의 지혜를 담은 책이다. 저자는 소박한 삶의 아름다움과 두 손으로 일구는 노동이 주는 기쁨,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자유의 즐거움에 대해 유티와 유머를 섞어 경쾌하게 이야기한다. 아울러 소박한 농부의 삶에서 얻은 지혜와 해안으로 현대문명을 깊게 통찰한다. 현대인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유전자 조작, 핵 발전소, 대량생산과 기계화 같은 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지 돌아보게 한다. 또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 행복하고 돈에 얽매이지 않아 행복했다는 저자를 통해 행복한 인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선사한다.



여가

삶이 언제부터인가 메아리로 돌아온다.

잔잔하게 밀려오던 파도가 거센 바람에 화난 모습으로

해변을 덮칠 때 소용돌이치는 마음을 달랠 길이 없다면

추스를 수 없는 방황을 하게 된다.

잡다한 일상에서 탈출하여 한적하게 마음을 달래 줄 길을 열어보는 것 또한 지혜가 아니던가.

먹물에 적셔진 붓 몇 번 움직이면 내 마음 다져지는 것은, 삶에 대한 고마움이다.

김봉대 / 명서초등학교 교감

• 경상남도 미술대전 초대작가



배움이 즐거운 학교 ·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2015. 달라지는 경남 교육정책

1.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행정기관 조직 개편

- 본청 기획기능 강화 및 집행기능 최소화, [경남교육연구개발지원] 교육연구 및 진로진학 업무 강화, 교육지원청의 학교현장 지원 강화

2. 학교평가 방법 개선

- 단위학교 평가목표에 따른 100% 자체평가

3. 기관평가 방법 개선

- 기관(교육지원청, 직속기관)평가를 성과관리 평가로 통합

4.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

- 교무행정전담팀 운영 내실화, 업무 매뉴얼 개발 보급, 공문서 감축 등

5.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 토론회 개최

- 교육감과 함께하는 500인 원탁 대토론회 실시(3회), 경남 학생회장단과 교육감과의 대화 실시(1회)

6. 행복학교 운영

- 행복학교(11교), 행복맞이학교(70교), 행복학교연구회(30개)

7. 방과후학교 주요 변경 내용

- 초등 정규수업 이전 방과후학교 운영 금지, 중·고교 0교시 수업, 강제적 자율학습, 획일적 보충수업 금지,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8.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 학교별 교과 연계 독서활동 전개, 1학교 1독서동아리 운영

9. 경남사이버도서관 구축

- 교육·연구 자료 체계적 관리, 우수 교육자료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데이터베이스

10. 도지정 연구(시범)학교 폐지

- 2년차 계속 지정학교 3교 제외 도지정 연구(시범)학교 폐지

11.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확대

- 소규모 그룹형 협력장학, 유치원 교원 안전교육 연수 실시

12.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시범운영 확대

- 1학급 이상 유치원 대상 교원능력개발평가 시범운영 확대

13. 고입선발고사 폐지

- 내신석차백분율(100%)에 의한 고입전형 실시

14. 초·중학교 학생평가 방법 개선

- 서술형·논술형평가 확대, 수시 평가제(초등), 성취평가제(중등)

15.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교육과정 편성 시 유의점

- 영어영역 선택형(A/B형) 수능 폐지 등

16. '밤 10시 이후 스마트폰 꺼두기 운동' 전개

- '밤 10시 이후 스마트폰 꺼두기 운동' 전개, 바람직한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

17. 학교체육 활성화

- 초등체육전담교사 확대배치(6학급 이상), 온가족 페스티벌 폐지, 교육감기 바둑대회 및 교육가족 배드민턴대회 폐지 등

18. 초·중·고 신입생 체육복 무상지원

- 초·중·고 신입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체육복 무상지원

19. 학교폭력예방 무지개센터 운영

- 학교폭력예방 무지개센터 구축·운영(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확대, 학교폭력 '멈춰' 캠페인 전개, '22:00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범도민 운동 전개

20. 맞춤형 대안학교 운영

- 수시형, 입학형, 심화형 대안학교 운영

21. 학부모교육 활성화

- 연 2회 이상 학부모 교육 실시, 학부모 네트워크 역량 강화

22. 재난대응 안전교육 강화

- 4월 16일 '학교 안전점검의 날' 운영, 사안별 재난대응 안전 매뉴얼 개발·보급, 7대 안전교육 표준안 교사 연수 실시

23. 학교 놀이터·모래사장 중금속검사 및 운동시설 점검

- 전 단설유치원, 초등학교 놀이터·모래사장 중금속검사 및 운동시설 점검

